

아담은 빅뱅을 알았을까? -문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황의찬 (전주온고을침례교회 담임목사, 신학박사 Th.D)

논문초록

우주의 생성에 대한 젊은 연대 창조론¹⁾과 오래된 연대이론²⁾ 사이에서 기독교는 혼란을 겪고 있다. 17세기까지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진영 모두 천동설을 사실로 믿었으나 지동설이 입증되면서부터 기독교와 비기독교 진영 사이에서 우주의 생성 연대에 대한 대립은 시작되었다. 19세기에 진화론이 가세하면서 대립은 급속하게 격화되었다. 그러자 기독교 진영의 일부에서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우주의 생성을 오랜 연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는 일련의 작업이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한 시도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어긋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여 새로운 우주생성이론을 도출해 냄에 따라 점차 사문화 되었다. 오늘날 과학은 우주 생성이 최소한 138억년 이전 빅뱅에 의해서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는 수학적 자료와 물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선불리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자 기독교 일각에서는 '하나님은 빅뱅과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창조하였다'는 이른바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과학의 오래된 연대이론에 밀려 젊은 연대 창조론은 고사할 위기에 봉착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선포된 우주의 생성은 젊은 연대 창조론이다. 지금 기독교는 젊은 연대 창조론을 뒷받침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천지창조와 관련된 성경의 텍스트가 지금까지는 실존에 근거한 상상력과 그간의 신학적 그리고 외부의 변수³⁾에 의하여 해석이 되어져 옴으로써 젊은 연대 창조론이 위기에 봉착했다면, 이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야 한다. 본고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접근하는 창조론의 제3의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성체창조로서 성체에 이르는 과정과 그 기간을 생략한 창조임에 착안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에 주목한다. 한편, 오늘날의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생략한 과거를 들여다보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이를 '시작에서 생략한 과거이론'으로 제안하면서 무릇 세상 만물 안에서 시도되는 모든 '시작'에도 생략된 과거가 있을 것이라는 창조의 유비를 밝혀낸다. 문학적 상상력을 발현하여 '생략된 과거'는 첫 사람 아담이 자식 간의 살인사건에 직면하여 해결에 도달하는 접근방식의 프레임으로 적용한다. 아담은 살인자가 된 가인이 자기 죄과를 '생략된 과거'처럼 끊어내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견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아담이 자신의 생애에서 청년기 이전이 생략되었음을 알고 그 생략된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일은, 빅뱅이론이 팽창하는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도달한 우주 생성이론의 방법론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문학

1) 우주의 생성을 성경에 근거하여 육천 년 내지 일만 년쯤 되었을 것으로 주장하는 이론, 성경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선포함으로써 '젊은 연대 창조론'으로 지칭.

2) 고대의 철학에서 근현대의 과학이 밝혀내는 우주의 생성 연대를 아주 오래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오래된 연대 이론으로 지칭.

3) 과학을 비롯한 비기독교 진영의 우주 생성 이론이 성경 텍스트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적 통찰로써 아담의 일대기를 대하드라마로 연출하면서 젊은 우주 창조론의 타당성을 새롭게 제시한다.

주제어: 생략된 과거이론, 에덴탐사보고서, 아담은 빅뱅을 알고 있었다. 제3의 창조론,

I. 들어가는 글

‘아담은 빅뱅을 알았을까?’ 상당히 생뚱맞다.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었다. 부제를 보니 조금 알 듯도 하다. 문학이라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지 싶다. 그럼에도 아담과 빅뱅을 연결했다면 그 배경이 거의 성경에 맞먹는다. 성경의 배경은 태초로부터 종말을 지나 새 하늘 새 땅에서의 영원까지이다. 이에 비해 ‘아담은 빅뱅을 알았을까’라는 문학적 상상은 태초로부터 21세기까지이다. 이렇게 장구한 배경을 문학적 상상의 바탕으로 삼았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0~21세기를 지나면서 과학이 내놓은 우주의 생성이론으로서 ‘빅뱅이론’이 있다. 우주생성에 대한 담론에서 빅뱅이론을 제외하고는 논하기 어렵다. 빅뱅이론은 우주 생성이론으로서 대세가 되었다. 이런 면에서 아담과 빅뱅이 조우했다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은 없다. 오히려 ‘빅뱅이 아담을 알았을까?’가 아니라 ‘아담은 빅뱅을 알았을까?’라고 한 것이 이상하다. 아들이 아버지를 탁했다고 해야지 아버지가 아들을 탁했다고 말하면 틀린 표현이다. 굳이 밝히자면 빅뱅이 아담을 따라했다.

발표자 황의찬은 지난 1월에 ‘아담은 빅뱅을 알고 있었다’⁴⁾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에덴동산 탐사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었다. 책의 제목과 부제만 보고도 독자는 ‘문학적 상상의 산물이겠거니’ 할 것이다. 물론 책의 형식은 문학적 상상력으로써 소설의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내용은 묵직한 신학적 주제이다. ‘빅뱅’이 제목에 들어있으니 당연히 우주의 생성에 대하여, 아담이 거론되었으니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하여 다룬다. 지금부터 아담과 빅뱅의 대면을 통한 우주의 생성이론에 대한 담론으로 초대한다.

II. 우주의 기원

1. 우주 생성 연대 논란

오래 전부터 인류는 만물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을 품어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물, 불, 수(數), 공기, 흙 등을 내세우면서 우주의 기원을 까마득한 과거로 산정했다. 동양에서는 음양오행 사상으로 우주의 생성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고, 한국인은 우주의 기원이 ‘태극’이라고 여기면서 역시 우주 생성 연대를 까마득한 옛날로 단정했다.

세계 각지의 여러 종교도 우주만물의 기원을 대단히 오래 전이라고 주장한다. 우주는 아주 오랜 옛날에 지어졌을 것으로 유추하는 태도가 인류 역사에서 보편성을 획득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의 눈에 비친 삼라만상이 이렇게 웅대하고 정교한 모습을 갖추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소모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천지창조 텍스트는 태초에 하나님이 옛새에 걸쳐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음을 천명하면서 태초가 어느 시점인지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것이 아담으로부

4) 황의찬, 『아담은 빅뱅을 알고 있었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터 예수에 이르는 족보다. 이 족보에 근거하여 아담부터 예수까지의 연대를 개괄해 보면 대략 4천여 년이다. 여기에 예수 이후 2천 년을 합산하니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이 태초이다. 우주 생성의 연대를 이렇게 짧다고 주장하면서 신앙하는 진영은 기독교가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한다.

성경에 근거한 이 믿음은 기독교의 창조이론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태초가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이라는 해석은 중세를 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종교나 사상 혹은 학문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기독교의 창조신학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만방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사명을 가진다. 종교개혁이후 주춤했던 해외 선교에 대한 불씨가 되살아난 18세기 말⁵⁾을 지나오면서, 성경에 근거하는 모든 신학적 주제는 이교도와 마주한 토론의 탁자위로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짧은 천지창조 연대론'과 '아주 긴 우주 생성 연대론' 간의 격돌도 불가피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젊은 연대 창조론으로 무장하고 아주 오랜 연대설을 주장하는 세상의 '견고한 진'과 맞서기를 주문한다. 마치 다윗에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쟁에 나가라(역대상 18:4) 함과 같다.

2. 신학이 모색한 오랜 연대 창조론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젊은 연대 창조론으로 세상의 견고한 진과 맞서라 했지만, 교회와 신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래된 연대 이론과 맞서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신학계의 일부 진영에서 타협안을 모색했다. 혹시나 성경의 텍스트 안에 우주 생성에 대하여 오래된 연대를 지지하는 근거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다. 그리고 성경의 텍스트를 다시 들여다봤다. 성경의 옛새 창조와 젊은 연대 창조론을 지키면서도 세상이 주장하는 오래된 연대가 옳을 수도 있다는 기발한 착상은 하나의 돌파구를 찾아냈다.

1814년 신학자이며 스코틀랜드 자유교회(Free Church)의 초대 총회장을 지낸 토마스 찰머스(Thomas Chalmers)는 에딘버그 대학교(Edinburg Univ.)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으로 매우 오랜 간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까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신학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토마스 찰머스의 주장은 충격과 함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른바 간격설이다.⁶⁾

간격설은 잇따라 유사한 주장을 불러왔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간격뿐 아니라 창세기 1장 1~2절과 3절 사이에도 간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격설의 아류로서 중건설도 등장했다. 중건설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날 우주의 모습으로 창조했다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전면적인 폐쇄 조치를 한 후 한동안 방치했다가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다시 창조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간격설과 중건설에 이어 날-시대이론도 등장했다. 날-시대이론은 창세기의 옛새 창조에서 그 옛새는 오늘날의 스물네 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지질학에서 일컫는 한 시대에 해당하는 오랜 시간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모두 젊은 연대 창조론을 포기하고 오래된 연대 이론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였다.⁷⁾

성경도 오랜 연대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 이론들은 교회 안에서 입지를 확보해나갔다.

5) 1793년 런던선교회 소속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파송되어 첫 선교를 시작했다.

6) 출처: <https://ibeiam.tistory.com/19>

7) 아직도 기독교의 일부 진영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반론이 교회 안에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수긍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의 발전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토마스 찰머스가 간격설을 내놓고 한 세기가 흐른 20세기 초 과학은 또 한 번 획기적인 업적을 내놓는다. 1926년에 에드윈 허블이 우주는 일정한 상태의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정상상태가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⁸⁾ 허블의 주장은 후속 연구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로 확증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주목하여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속도를 역으로 적용하여 우주가 아주 작았을 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가기 시작했다. 결국 아주 오래 전 우주는 원소보다도 작은 알갱이로 존재했을 것이고, 그것이 폭발하여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이것이 빅뱅이론⁹⁾이다. 빅뱅이론은 진화론과 합세하여 우주의 생성에 대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대세이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과학은 그 속성상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이전의 것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빅뱅이론 이전에 회자되었던 우주의 생성에 대한 모든 이론은 효능을 잃었다. 빅뱅이론은 그 이전의 우주 생성 이론뿐만 아니라 신학계의 간격설, 중건설을 비롯한 날-시대이론 등도 낡은 시대의 유물로 만들었다. 이것으로는 빅뱅이론과 보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오래된 창조론을 모색해왔던 일부 신학은 새롭게 빅뱅이론에 알맞는 오랜 연대 창조이론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론이 '유신진화론'이다.

유신진화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자연계의 생명체를 만들 때, 이들에게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이론이다. 위키 백과는 '복음주의 계열 신학자'들과 '거의 모든 기독교 계열 과학자들'에게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창조이론으로 소개하면서 유신진화론의 대표적인 지지자로서 C.S 루이스, 한경직, 함석헌을 예시하고 있다.¹⁰⁾

가톨릭 진영은 공식적으로 유신진화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명이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가톨릭의 가르침과 충돌하지 않는다. 또한 세상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빅뱅이론도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¹¹⁾ '복음주의 계열 신학자'와 '거의 모든 기독교 계열 과학자들' 그리고 '가톨릭 진영'이 유신진화론에 경도되었음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의 교회 중에도 유신진화론에 동조하는 교회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천지창조 텍스트 해석에 대한 반성

교회가 현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학의 접근방식이 과학의 성과물에 종속되어 갈팡질팡하는 것은 운당치 않다.

과학이론은 자체적으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되돌아갈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나 기독교

8) 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5h0161a>

9) 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61XX80100011>

10) 출처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8B%A0%EC%A7%84%ED%99%94%EB%A1%A0>

11) 출처 : <http://danbitv.com/column/detail.php?id=480&type=46>

는 신학에 오류가 발견되면 되돌아갈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다. 이는 다행한 일이며, 축복이며, 한편으로는 성경이 변개치 아니하는 진리임을 웅변한다. 여기서 과학과 신학의 위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신학은 세상의 학문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이 세상 학문의 우위에 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과학의 연구에 종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독교 계열 과학자들' 중 일부가 연대하여 현대 과학이 주장하는 우주생성에 대한 이론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젊은 연대 창조론을 옹호하기도 한다.¹²⁾ 또 한편에서는 아예 과학이나 세상의 학문을 도외시키고 문자적 해석에 근거하여 젊은 연대 창조론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³⁾

성경이 세상학문 특히 과학에 대하여 완전히 개방한다면 성경의 여러 주제들은 훼손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면 전도의 문도 동시에 폐쇄되는 딜레마가 있다. 그렇다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과학의 업적에 맞서서 과학적 논란을 통해 젊은 연대 창조론을 관철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근본주의적 혹은 문자주의적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다.

기독교는 일점일획도 변개치 않으며 최소한 2천년 이상을 진리로서 굳건하게 서 있는 성경의 텍스트를 지녔다. 그러나 과학의 성과물은 불과 한두 세기밖에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학이 세속 학문이나 사상에 종속되어서는 아니 됨은 자명하다. 이쯤에서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직시하면서 바른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Ⅲ. 에덴동산 탐사보고서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전능한 분이다. 그동안 창조신학이 세속학문과 사상의 종속적 위치에 서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진리 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소홀히 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이다. 창조신학에 있어서는 특히 하나님의 전능함에 천착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함으로써 천지를 창조했다. 차제에 전지전능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에덴동산을 탐사해 보고자 한다.

1. 아담과 하와 및 동물

아담과 하와의 출현을 보자.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당일 결혼했다. 흔한 질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서 성경은 계란이 아닌 닭으로 출발했음을 분명히 한다. 아담과 하와가 성년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정의해 보자. '건너뛰었다' 혹은 '생략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그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아담 하와처럼 성년의 동물로 지었다.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 그리고 각종 동물이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성년에 이르는 기간을 생략하고 창조했다.

12) 창조과학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창조과학회는 빅뱅이론에 대한 모순을 발견하여 반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13) 이를 문자주의, 근본주의로 부르기도 하는 한편 보수주의 혹은 극우보수로 지칭되기도 한다.

2. 선악과 생명과 등의 나무

에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비롯하여 열매를 맺는 많은 나무가 풍성했다. 이 나무들은 모두 옛세 동안에 창조되었다. 에덴동산의 나무 밑동을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을지 없을지 상상해보자. 나이테 없는 나무는 없다. 에덴동산에 있는 아름드리나무들은 창조 옛세 안에 하나님이 세웠지만 모두 나이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무가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 나이테를 늘려가면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상당한 기간을 생략하고 창조했다.

3. 네 개의 강과 보석

에덴동산 안에는 네 개의 강이 시작하는 발원지가 있었다(창 2:10~15). 에덴에서 흐르기 시작한 강은 바다를 향한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옛세 동안에 만든 강은 그때부터 발원지에서 저지대로 흐르기 시작하는 개울로 만들지 않았다. 하류가 이미 바다까지 닿아있는 완전한 모습의 큰 강으로 창조했다.

강가에는 순금, 베델리엄(진주), 호마노(홍옥수)도 있었다. 보석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진주는 생성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진주가 에덴동산에 이미 있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함으로써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기간을 생략했다. 하나님은 보석이 만들어지기까지, 강이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생략하고 창조했다.

4. 지층과 화석

에덴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창세기의 기록은 그때 이미 지층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지층의 형성이 미비하다면 강물은 땅바닥으로 스며들 들 것이다. 이로 보아 지층은 이미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며, 그 지층 사이의 화석 또한 존치시켰을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역청을 사용했다(창 6:14). 대홍수 이전에 이미 지하의 광물자원이 있었다는 것은 화석의 존재를 시사한다.

하나님은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뿐 아니라, 지층의 형성과 화석, 온갖 천연가스과 지하광물자원이 매립되고 퇴적되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략하고 창조했다.

5. 광명체와 빛의 속도

창조 넷째 날에 하나님은 광명체를 만들었다(창 1:14~19). 오늘날 과학이 밝힌 별의 생성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넷째 날 하루 동안에 모든 광명체를 만들었다. 과학이 설명하는 광명체의 생성에 이르는 기간을 하나님은 생략했다. 하나님은 광명체의 생성에 이르는 기간뿐 아니라 광명체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도 생략했다. 만일 광명체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광명체의 빛이 지구를 향하도록 했다면 넷째 날 밤에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수는 많지 않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5)고 했다.¹⁴⁾ 그때 이미 지구로부터 1백억 광년 이상의 거리에 있는 별빛도 관측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젊은 연대 창조론과 빛의 속도를 감안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오늘날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별은 지구로부터 6천 광년 거리에 있는 별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바

14) 아브라함은 창조이후 대략 1천 8백여년 무렵의 인물이다. 만일 별의 창조부터 별빛이 지구를 향하도록 했다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은 지구로부터 1천 8백 광년 이내의 별 뿐이다.

에 따르면 지구로부터 1백억 광년 거리의 별빛이 관측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의 나이가 1백억 년 이상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설명은 될 수 있으나, 전능한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별이 생성되는 기간,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기간을 생략하고 창조했다.

6. 하나님의 시작에는 생략된 과거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온갖 피조물이 성체로 형성되는 과정 즉 과거를 생략했다. '하나님의 시작에는 생략된 과거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창조 기록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신학은 능히 하나님의 전능성에 비추어 하나님의 창조에는 생략된 과거가 있다고 담대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설명된다.

성경의 창조 기사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 최소한 한 가지가 명징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시작할 때 시작의 단초가 되는 과거를 생략하는 속성을 드러냈다.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한다면 능히 과거를 삭제하는 분이다.

IV. 생략된 과거 이론의 보편성 입증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할 때 그 단초가 되는 일정 부분을 생략했음이 위의 에덴동산 탐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세상에서의 존재 혹은 사건으로서의 각종 '시작'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상의 모든 시작에도 생략된 과거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에 대한 피조된 세상에서의 '유비'¹⁵⁾라 할 수 있다.

신학은 종종 유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기도 한다. 현대의 설교자들이 설교 중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도 한다. 삼위일체를 이해시키기 위한 예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예화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예화는 피조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유사하게 대응하는 사건으로서 유비라 할 수 있다.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이론의 입증도 피조된 세상에서의 유비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피조물의 과거를 생략하고 지었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숱한 시작에도 생략된 과거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피조물의 순환 구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천지와 만물은 기본적으로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과정 속에 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생산하고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 그의 자녀는 성장하고 자라서 자녀를 생산하고 수명을 마친다. 모든 동물도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순환의 고리에 속해 있다.

식물은 '씨앗 ~ 발아 ~ 성체 ~ 씨앗'으로 되풀이되는 순환 속에 존재한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순환한다. 흙은 다져져 바위가 되었다가 깨어지면서 조약돌이 되고 또 더 작아져 모래가 되었다가 다져지면 다시 바위가 된다. 시간도 아침, 점심, 저녁, 밤에서 다시 아침으로 순환한다.

15) 유비 ; 신학에서 '유비'를 다루지만 여기서의 유비는 단순화하여 사용한다. 유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 상호간에 대응적으로 존재하는 동등성 또는 동일성'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생성에 이어 소멸의 단계를 필연적으로 거치지만 사물의 계속성을 위해 번식이라는 수단을 가진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순환과정 속에 존재하는 사물'로 지었다. 이러한 피조 세계 속에서 시작을 규명해보자. 시작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어떤 일, 행동, 현상의 처음'이다.

한국의 속담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질문이 있다. 시작에 대한 모호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설령 계란이 먼저라고 하더라도 계란의 시작은 무엇이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참나무의 시작을 도토리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도토리의 시작을 설명해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작이란 모름지기 무에서 유로 옮겨 가는 것인데, 피조물의 세계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시작은 있을 수 없다. 결국 피조 세계의 모든 시작에도 생략된 과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에서 유로 시작하는 진정한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뿐이다. 물론 여기서도 생략된 과거가 있으니 그것을 '무'라고 할 수 있다. '무'라는 상태를 생략하고 하나님은 '유'를 시작했다. 창조 이후의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시작한 창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의 무에서 유로 창조하고 이후에 빚어지는 모든 것은 첫째 날 창조한 질료를 사용한 창조로서 생략된 과거에 근거한 시작이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와 경륜이다.

2. 자아(自我)의 시작

한 사람의 '나'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오랜 역사가 지속되어왔다. 그 한 사람인 나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 출생이전의 역사는 생략된 과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역사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 역사와 인류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나의 존재를 위해 생략된 과거는 중요하다. 생략은 존재를 가능케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수단이기도 하다.

한 사람으로서 '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를 질문해 볼 때는 자의식이라는 기억에 의존하게 된다. 내가 나라는 의식이 없을 때의 나는 자아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나는 언제부터 나이며 언제까지 나인가의 관점에서 나에게도 생략된 과거가 없을 수 없다.

사람도 피조 세계 순환의 한 과정에 있는 존재이다. '수태 ~ 출생 ~ 성장 ~ 결혼 ~ 임신(수태)'의 어느 한 과정으로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나의 나 됨은 '성장'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한다. 사람은 대략 3~4세 이전은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의 출생과 성장의 일정 시점 이전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낳아 준 부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그것은 생략된 과거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3. 과학이 말하는 우주 생성 사건, 빅뱅 시작

학문의 시작에도 생략된 과거는 필연이다. 과학의 시작에도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세상은 규칙성을 갖는다. 둘째 과학자는 이성과 지성을 가졌다. 셋째 과학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넷째 과학자는 학자적 양심을 가진다. 다섯째 과학의 성과를 세상이 수용할 것을 믿는다. 이것은 과학이 시작하면서 생략한 과거이다. 최소한 이러한 몇 가지의 전제가 없다면 과학은 시작할 수 없다. 과학의 시작에도 생략된 과거가 있다.

빅뱅이론의 시작에도 생략된 과거는 필연이다. 빅뱅의 출발은 '특이점 singularity'이다. 빅뱅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특이점을 '원소보다도 작은 것'으로 표현하면서 특이점이 폭

발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과학자는 원소보다 작은 것이 폭발했으므로 빅뱅의 출발에는 생략된 과거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원소보다 작은 특이점도 그것이 생성되기까지의 과거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이점을 원소보다 작은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여기에도 생략된 과거의 문제는 풀지 못할 숙제로 고스란히 남는다. 특이점이 무에서 유가 된 시점 이전은 과학자가 추적하지 못한다. 이는 특이점의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이기 때문이다.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는 피조물이 밝힐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신의 영역이다. 과학은 이 진리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

4.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는 무의미한가?

생략된 과거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과거에 대한 의미를 찾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無)의 영역이다. 무의 영역이 있음으로써 유(有)는 시작된다. 이때의 무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설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다. 무는 유를 위해 시작에서 생략된다.

둘째 창조이후 천지 만물 중에 있는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가 있다. 이를테면 '닭을 위해 생략된 과거'가 있다. 에덴동산의 열매 맺는 나무를 위한 생략된 과거, 과학의 시작을 위해 생략된 과거, 빅뱅이론이 말하는 특이점에도 생략된 과거가 있다. 이러한 생략된 과거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분명한 것은 생략된 과거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성장과 자아의 측면에서 볼 때 생략된 과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은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생존 본능이라 할 수도 있는 적응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안정과 불안정을 알고 느끼는가 하면, 결핍과 만족, 과잉을 감지하고 적정을 추구한다. 자신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감지하고 위기에 처하면 울음으로 신호를 보낸다. 칸트는 이를 '아프리오리'로 명명했는데 자아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오리는 자아의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이다.

인간이 성숙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각하는 선험 혹은 추체험도 일종의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라 할 수 있다. 자신이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안정과 불안정, 위험을 감지한다. 또한 감정이입이라는 기제로서 사회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식 혹은 지혜를 지닌다. 이 모두를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로 간주할 수 있다. 인간은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다. 역사이래로 이것은 인문학 혹은 과학이나 사회학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과학이 설명을 시도하는 우주의 6천년 이전은 하나님이 생략한 과거이다. 하나님이 생략했기 때문에 실재(reality)가 아니다. 그러나 피조물 인류는 거기를 들여다본다. 피조물은 전능자 하나님이 시작에서 생략한 과거의 실상을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피조물의 한계이자 실존이다. 인간은 실존적 존재로서 실존적 상상을 한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이다. 전지전능자로서 시작에서 과거를 생략한다. 피조물 인간이 이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곧 겸손이다. 신학자도 과학자도 모두 겸손해야 하는 이유다.

신학은 과학이 들여다보는 창조주가 생략한 과거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생략된 과거는 창조주에게도 피조물에게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자는 생략된 과거를 실재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학자는 하나님이 생

략한 과거로 믿으면서 연구할 수 있고, 그 연구에 충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기독교인 과학자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의 입장을 헤아리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자에게 빅뱅의 시작에서 생략된 특이점 이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도록 요청하면서 모든 시작에는 생략된 과거가 있으며 그것은 피조물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데에 공감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 들여다보는 생략된 과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이 경이롭게 드러남을 수궁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한다.

V. 생략된 과거 이론의 적용

1. 하나님의 적용

하나님은 천지창조에서 과거를 생략하는 자기의 속성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과거를 생략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단지 천지창조의 때에 국한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볼 차례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고 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 중에 사람의 죄를 속해 주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기억에서 지움으로써 용서한다. 인간의 죄악 된 과거를 하나님은 생략함으로써 구원한다.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기억 아니 하시네 (새 찬송가 255장 2절 가사)

기억을 아니 함은 망각이고, 망각은 자기 기억의 일정 부분을 떼어냄이다. 생략이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피로써 형벌을 대신 치르고, 자기 백성의 죄악 된 과거를 생략함으로써 구원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과거를 생략하면서 일하는 분이다.

한편 하나님은 실재가 아닌 과거, 창조의 시작에서 생략한 과거를 연구함으로써 창조주를 부인하는 사상과 학문을 허용했다. 고대의 철학과 사상은 물론 근현대의 과학이 집착하는 아주 오래된 과거가 창조주를 부인하는 결과를 빚어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를 허용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알고 허용했다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에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꺼이 두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임에도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 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했다(창 3:5).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음에도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 땅에 온갖 사상과 과학과 철학과 이념을 허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이 빅뱅이론을 보고 무신론자가 되거나 유신진화론을 만들어 성경의 텍스트를 훼손하는 일도 하나님은

허락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류가 찾아내어 걸어야 하는 좁은 길이다.

2. 아담의 적용

아담과 하와는 지음 받은 당일 하와와 짝을 이뤘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아담은 “어?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떠난다고 합니까?”라고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담은 자신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생략된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의 생략된 과거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백지상태의 공백이 아니다. 당일에 지어져 당일 결혼한 그의 멘탈리티(mentality) 안에는 성년에 합당한 모든 의식, 무의식이 다 들어있었다. 하나님은 전능함으로써 아담을 결혼하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지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았고, 자기 행위에는 책임이 따름도 알았다. 결혼의 의미는 물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충분했다.

에덴에서 쫓겨나 살아가는 아담은 뜻밖의 사건에 직면한다. 장남 가인이 차남 아벨을 살해했다. 이 사건에 직면하여 아버지로서 아담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생략했다.¹⁶⁾ 성경에서 생략된 부분과 성경 텍스트의 행간은 독자의 상상력을 요한다. 가부장이자 족장으로서 아담은 장남과 차남 사이의 살인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보면서 수습에 나섰을까를 문학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은 유익이 있다.

아담은 장남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 삶을 이어가도록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접근해보자.¹⁷⁾ 아담은 어떻게 살인자 아담을 용서하며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 아담은 자신의 ‘생략된 과거’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은 과거는 물론 과거의 죄악을 생략할 수 있는 전능자임을 아담은 알았다. 아담은 살인자 가인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아담은 가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을 수 있다. 아담은 가인이 살인죄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비 된 심정이다. 가인은 자기가 저지른 흉악한 죄악을 생략한 과거로 돌릴 수 있었다.

3. 과학의 적용; 빅뱅이 아담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 생략한 과거를 피조물 사람은 도외시하지 않았다. 아담은 자신의 생략된 과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고 가인의 죄과를 생략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담의 후예인 인류 역시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뿌리와 역사의식을 가졌다. 천지와 만물의 생성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과거를 바라보는 노력이다.

철학이 먼저 천지와 만물의 근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과학이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과거에 일어났음직한 일들을 밝혀내기 시작했다. 현재를 직시할 때 과거가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피조물의 한계를 지닌 인류가 온갖 것을 동원해도 삶의 자리, 현재의 현상을 직관하는 일은 늘 불비했다. 아주 오랫동안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성과만으로도 과거를 바라보는 발판이 조금은 든든해졌다.

과학은 급속히 발전한다. 과학은 17세기에 지동설을 확인하고 20세기에는 우주가 급속히

16) 하나님은 생략으로써 시작했고, 인류에게 계시한 성경도 생략기법을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명시적 기록인 행(行) 못지않게 행간(行間)으로 생략된 부분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계시한다.

17) 황의찬, 「아담은 빅뱅을 알고 있었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팽창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의 실상을 한층 더 알게 되었다. 그만큼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새로운 변화가 왔다. 팽창하고 있는 속도를 측정하여 그것을 과거에 소급했다. 우주가 아주 작은 알갱이 수준이었을 시점을 역산해 냈다. 그리고 빅뱅이론을 창출해냈다. 이는 아담이 자신에게서 생략된 과거를 직시함으로써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살인자 가인에게 적용했던 접근방식과 무척 유사하다.

문학적 상상력은 감히 빅뱅이 아담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아담은 빅뱅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생략된 과거를 통해서 답을 모색한 방법론을 공유했다는 뜻이다. 생략된 과거 속에서 답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 사람들은 생략된 과거가 아닌 자기의 실재하는 과거가 너무나 버거우면 스스로 잘라내기도 한다. 기억을 상실하기도 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에 적응을 도모한다.

VI. 천지창조 이론의 새 관점 : 생략된 과거 이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천지창조의 연대를 6천년 내외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우주 생성에 대한 오래된 연대이론을 모색하는 태도는 세상풍조에 따르고자 하는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에 얽매인 결과에서 비롯한 소치이다. 이는 하나님을 사람이 지니는 사고의 틀 안으로 한정하려는 그릇된 자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¹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생각과 행동의 틀을 초월한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텍스트가 완전하다는 전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텍스트가 완벽하다는 전제를 과학의 업적 뒤에 놓을 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텍스트는 훼손되며, 과학의 업적을 우위에 둔 신학은 과학이 내놓은 이론에 종속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작금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신진화론은 아마도 빅뱅이론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 과학은 빅뱅이론 이후에도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보다 더 정확하고 사실에 더 근접한 새로운 우주 생성이론을 도출해 낼 것이다. 과학이 주도하는 우주생성 이론의 결과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최소한 2천년 이상을 굳건하게 버텨온 성경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역사가 존속하는 한 인류는 장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가 그만큼 만들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개연성에 벗어나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의 텍스트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계시에 충실한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 발표자는 이를 위해 문학적 상상력으로써 에덴동산 탐사를 상정했다. 창세기 1~5장에 근거하면서 에덴동산의 모든 피조물은 완성품이 되기까지의 과정 즉,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가 있음을 밝혔다.

‘시작에서 생략된 과거 이론’을 세상에 어떻게 발표해야 할지를 두고 발표자는 기도 끝에 문학적 기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편의 책으로 출간했다.¹⁹⁾ 이 저술은 문학적 상상력에 의지하여 ‘생략된 과거 이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경에서 창조과정을 묘사한 창세기의 행간에 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어 아담 하와의 일대기를 대하소설 형식으로

18) 민 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 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개역개정판.

19) 황의찬, 「아담은 빅뱅을 알고 있었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풀어내면서 생략된 과거 이론을 입증한다.

생략된 과거 이론은 현대는 물론 과학이 미래에 내놓을 우주 생성 이론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래된 연대를 막연히 신봉하는 세상풍조와도 극한 대립을 비켜가면서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생략된 과거 이론은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문학적 상상력으로 해석하고, 문학적 기법으로 펴내는 천지 창조에 대한 제안이다.